



스페인의 다비드 비아가 30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남아공월드컵 포르투갈과의 16강전에서 후반 결승골을 터뜨린후 무릎을 꿇고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8강

남미 4+유럽 3+阿 1

“모두가 절대강자”... 남미 VS 유럽 자존심 대결구도

내일 밤 네덜란드-브라질 첫 스타트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8강 진출 팀이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스페인-포르투갈의 16강 경기(스페인 1-0 승)를 끝으로 모두 가려졌다. 네덜란드-브라질, 우루과이-가나, 아르헨티나-독일, 파라과이-스페인 각각 4강 진출을 놓고 운명의 한 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

남미 팀들의 선전이 조별리그에 이어 16강전까지 계속된 가운데 공교롭게도 8강 대전이 '남미 팀-비(非) 남미팀'으로 이뤄지면서 브라질 언론에서는 '남아공 월드컵이 코파아메리카를 연상시킨다'고 보도하는 등 남미는 잔뜩 촉채 분위기다. 월드컵처럼 4년마다 개최되는 코파아메리카는 남미 대륙 국가대항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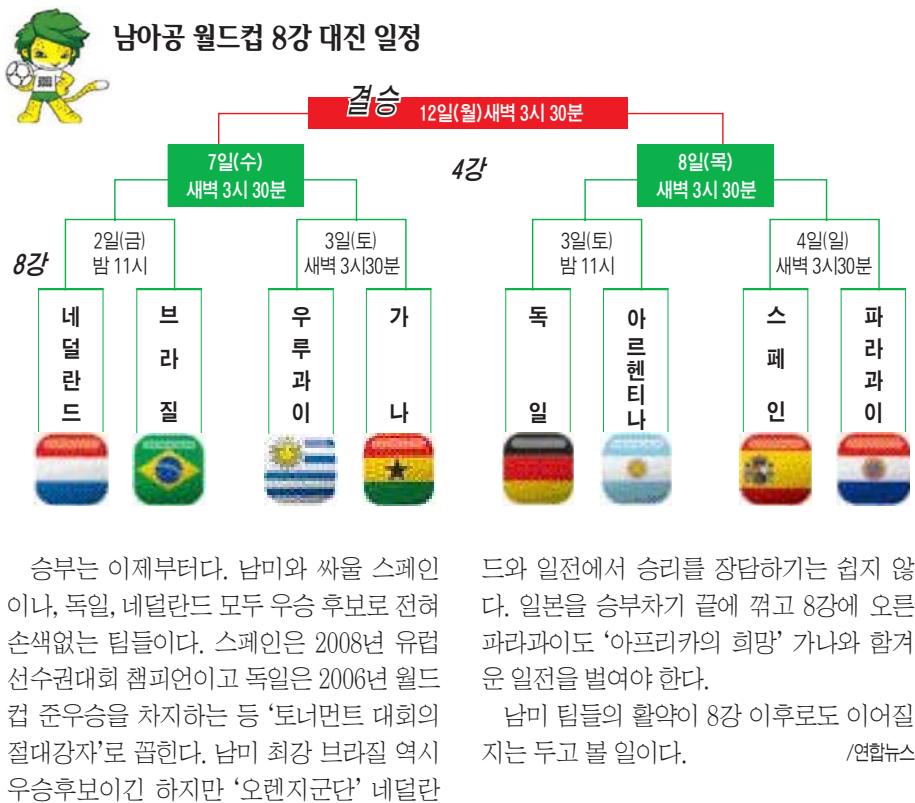
남미 대륙에서는 이번 월드컵에 총 5개 팀이 출전했는데 지역예선에서 2위를 차지한 칠레가 브라질과 16강전에서 0-3으로 저 귀국길에 올랐을 뿐 나머지 네 팀이 8강에 올

라 우승 꿈을 키워가고 있다.

반면 남미와 함께 세계축구의 양대 산맥을 구축한 유럽은 13개 팀이 본선에 올라 네덜란드와 독일, 스페인 등 세 팀만 8강에 살아남았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 남미 팀이 선전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남미가 남아공과 같은 남반구에 있어 계절적 영향 등에서 타 대륙 선수들보다 적응하기 쉬웠고, 남미 역시 남아공의 개최도시들처럼 고지대가 많은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으리라는 해석 등이 잇따르고 있다.

브라질 언론에서는 남아공 월드컵 준결승전이 사상 처음으로 남미 팀들 간 대결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벌써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되면 이번 대회 우승국은 남미 대륙에서 나온다. 2006년까지 18차례 월드컵에서 남미와 유럽은 9차례씩 우승을 나눠 가져다.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일본 고마노 유이치가 괴로워하고 있다.

아~ 승부차기 실축

日도 8강 좌절... 파라과이에 3대5 석패

‘사무라이 블루’ 일본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파라과이와 연장 120분의 혈투 끝에 승부차기에서 눈물을 흘렸다.

사상 첫 8강을 노렸던 일본은 지난달 30일(한국) 남아공 프리토리아의 로프투스 페트스켈트 경기장에서 벌어진 16강전에서 남미의 강호 파라과이와 연장전까지 120분의 대결전을 펼쳤으나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고마노 유이치(주빌로 이와타)가 빠아픈 실축을 해 파라과이에 3-5로 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 출전한 아시아 팀은 모두 탈락했으며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첫 원정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것에 만족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 출전한 아시아 팀은 모두 탈락했으며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첫 원정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것에 만족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마침내 이번 대회에서 처음 열린 승부차기. 파라과이 선수들은 ‘칠라베르트의 후계자’로 불리는 골키퍼 후스토 비야르(바야돌리드)의 두 손에 온 기대를 걸었고, 일본 역

시 지난해 J리그 최우수 수문장인 가와시마 에이지(가와사키 프론타레)에게 기를 불어넣었다. 양팀 모두 2명의 키커가 가볍게 골을 넣은 뒤 파라과이는 세번째 키커 크리스티안 리베로스(쿠루스 아슬)마저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했다.

이어 긴장감 속에 카키로 나선 일본의 고마노 유이치(주빌로 이와타)는 오프발로 강슛을 날렸으나 크로스바를 맞고 튀어나가 버렸다. 예상치 못한 실축에 고마노는 머리를 감싸쥐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일본 벤치와 ‘사무라이 블루’ 응원단은 이내 충격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를 예감한 파라과이는 4번째 키커 벨손 발데스(보르시아 도르트문트)도 골망을 흔들었고 일본의 간판 스타이치(도쿄 베르디)와 교체 투입된 오스카르 카르도소(벤피카)였다. 192cm의 장신 공격수인 카르도소는 마치 느린 그림을 연출하듯 천천히 볼에 다가선 뒤 왼발로 가볍게 골문 왼쪽으로 밀어넣었다.

/연합뉴스

한국축구 월드컵랭킹 27위로 상승

한국 축구의 역대 월드컵 랭킹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에 힘입어 27위로 세 계단 올랐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집계한 월드컵 통산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27위로 2006년 독일 월드컵 직후의 30위에서 세 계단 상승했다.

한국의 월드컵 역대 성적은 5승8무15패. 종전까지 4승7무13패였지만 이번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1승1무2패를 더했다.

한국은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그리스를 2-0으로 완파했으나 아르헨티나에 1-4로 달미를 잡힌 뒤 최종 3차전에서 나이지리아와 2-2로 비겨 조 2위

(1승1무1패)로 16강에 올랐다. 하지만 우루과이와 16강에서 1-2로 쳐 8강 신화 재현에는 실패했다.

일본도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오르면서 종전 44위에서 36위로 여덟 계단이나 점프했다.

반면 196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나왔던 북한은 조별리그 3전 전패의 부진 탓에 통산랭킹이 종전 55위에서 57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북한의 월드컵 성적은 1승1무5패.

이번 대회 8강에 오른 브라질이 월드컵 통산랭킹 1위 자리를 굳게 지켰고 이어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잉글랜드도 변함없이 2~5위에 늘어섰다.

/연합뉴스

北대표팀 가족들 환영 속 조출한 귀국

44년만에 진출한 ‘2010 남아공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북한대표팀이 29일 평양에 도착해 체육 분야 관계자들과 가족들의 환영을 받았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30일 밝혔다.

이 신문은 평양발 기사에서 “남아프리카 월드컵 경기대회에 출전한 조선팀 감독과 선수들이 29일 오후 평양비행장에 도착했다”면서 “마중 나온 체육 부문 관계자들이 ‘수고했다’며 위로하고 가족들이 꽃다발, 꽃무역을 건네주며 환영하자 무표정이었던 선수들이 미소를 지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44년만에 월드컵경기대회에 출전한 조선팀의 성적은

조국 인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출전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 월드컵 출전의 자신감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공방에서는 중국 베이징부터 고려항공편으로 함께 평양에 온 조총련 학생방문단이 북한대표팀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또 귀환한 선수단에는 ‘조총련 3총사’로 통하는 정대세, 안영학, 탐유경 세 선수와 북한팀 코치를 맡았던 재일본 조선인축구협회의 김광호 부회장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내달 1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연합뉴스